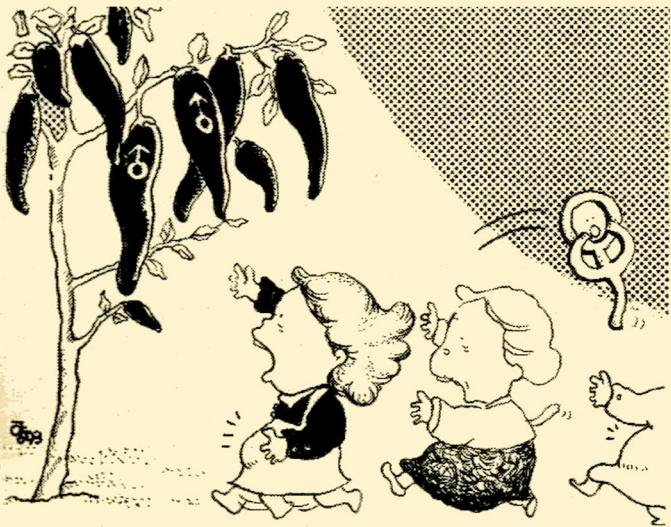


아직도 남아 있는 남아선호 관습들

민간신앙 재현에서 초음파검사까지

사자상의 이빨뽑기 등 소박한 기원 벗어나 첨단기기 이용, 인간생태계 위협받아



아들을 많이 낳아야 집안이 흥한다는 전통관념이 팽배하던 우리사회에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파격적인 구호가 등장한 지 20여년. 이제 신세대 부부들은 가족계획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인 판단으로 하나만 낳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려고 있지만 하나를 낳더라도 기왕이면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은 여전히 남아 있다.

뽕힌 사자상 이빨 새로 하는 것
관할구청 주요업무 될 정도

남아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전통 민간신앙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주도 신혼여행을 가는 신랑신부들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돌하루방의 코 만지기'라든가 사찰에 모셔진 '돌부처의 코만지기', 한강대교 곳곳에 설치한 '사자상의 이빨뽑기', 서울올림픽파크텔 로비에 놓여진 '청동 남자나 체상의 성기만지기' 등이다.

남자의 성기에 비유되는 돌하루방이나 돌부처의 코만지기는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차(祈子) 민간신앙의 전형으로 우리 조상들은 만지는 차원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이들의 코를 떼어내 가루로 만들어 먹음으로써 여기에 담겨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술적인 힘을 빌려 아들을 낳으려 했음이 <민속대관> 등의 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비석에 적혀있는 글자들 중에서 아들과 관련된 한자를 떼어내어 가루로 만들어 먹는 풍습도 성행해 석불의 코와 비명들이 훼손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

성수대교나 한남대교 등에 놓여진 사자상의 이빨뽑기는 이러한 민간신앙의 답습으로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수시로 뽑혀져나간 이빨없는 사자상들에게 다시 이빨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요 업무중의 하나가 되었다.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산구청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 뽑아간 사자상의 이빨을 자주 복원하다 보니 오래된 사자상에서 유독 이빨만이 하얗게 드러난다"면서 "바쁜 업무속에서 이런 일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화가 나다가도 '오죽 아들을 얻고 싶었으면...' 하는 마음에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오히려 이빨을 뽑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에 동정을 표했다.

성기 부위만 칠 벗겨진 남자 나체상

남아를 얻기위해 기물을 훼손시키는 또 다른 풍경은 서울올림픽파크텔 로비에 전시된 예술조각품인 나체 청동상 앞에서도 벌어진다. 신랑의 강권에 못 이긴 신부가 한 손으로 홍당무가 된 얼굴을 가리면서까지 다른 한 손을 뻗어 만지는 것은 서울올림픽 기념 상징물인 별거벗은 남자 육상선수 청동상의 성기. 아들을 낳는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신혼부부들이 실행에 옮기고 있을뿐 아니라 아들을 낳지 못한 주부들까지 와서 한번씩 만지고 돌아가 그 부분만 검푸른 칠이 완전히 벗겨져 누런 구리색을 드러냈다.

특히 이 청동상은 스웨덴의 조각가 호세 클레리아 아이아츠의 작품으로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전인 지난 87년 11월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올림픽 조직위에 기증한 것인데 당초 올림픽공원 피크닉광장에 진열돼 있다가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소문을 들은 시어머니들이 머느리들을 끌고와 강제로 만지게 하면서 점차 확산되게 됐다고 한다.

체육진흥공단측은 벗겨진 칠을 수차례 다시 했으나 얼마 안가 또 칠이 벗겨지자 지난 91년 10월 이 조각품을 파크텔 로비로 옮기고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라는 팻말까지 붙여졌지만 오히려 이곳으로 오기 시작하는 데다가 이곳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들에게 더 애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파크텔 한광수 총지배인은 "처음에는 단속을 했지만 이제는 묵인해 주고 있다"면서 "실제로 아들을 낳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파크텔을 다녀간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념물이 될 수도 있어 더 이상의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들 낳으려고 거미까지 잡아 먹은 조상들

한국인의 아들을 얻기 위한 집요한 노력은 '부모는 딸을 낳았을 때와 시집보낼 때 두 번 서운하게 된다' '아들을 못 낳는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 '다남(多男)은 천복(天福)이다' '아들이 있어야 남들이 넘보지 않는다'는 등의 속담이나 산속(産俗), 민간신앙 등의 민속에 잘 담겨 있다.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욕망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조상들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기도한 산속의 대표적인 예들은 임동권 씨의 <한국의 민속>이라는 책속에 자세하게 적혀 있다.

즉 무당을 불러 굿을 한다든지 산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사해의 용신에게 비는 것, 바위에 치성을 드리고 부처나 칠성님께 비는 것을 비롯해 아들 3형제를 둔 집의 수저를 훔쳐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의 배개 밑에 감추어 두는 방법, 붉은 거미나 검은 거미 3마리를 잡아 먹으면 잉태를 한다든지 은으로 자물통을 만들어 차면 효력이 있다는 등의 산속이 그것이다.

아들을 낳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신체는 민간신앙에서 보다 극명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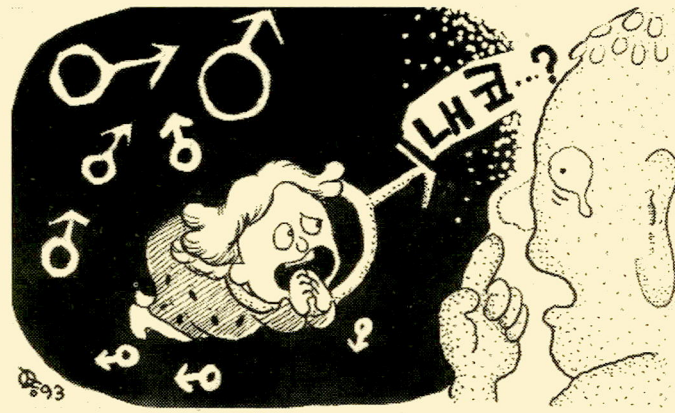
남녀의 작명에서도 남아선호사상 나타나

두 개의 바위가 서로 포옹하듯이 엉켜 있거나 남성 또는 여성의 성기를 닮은 바위, 구멍이 나 있는 고목이나 두 나무의 가지가 엉켜서 한 나무처럼 굳은 나무, 인체를 연상시킬 만큼 Y자 부분이 선명한 나무는 아들을 기원하는 민간신앙의 대상이 될 조건을 갖춘 것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바위나 나무가 있는 곳에 방을 얻어 그 방에서 부부가 성교를 하면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고 믿어 그런 나무와 바위를 찾아 헤맸다고 전해진다. (민속대관 관혼상제편)

또한 남의 땃줄을 훔치는

는 금줄을 훔쳐서 방에 걸어 두거나 그 새끼로 밥을 지어 먹는 일, 금줄에 부착된 아들을 표시하는 고추를 훔쳐 간장 항아리에 넣어두고 그 간장을 먹는 풍습, 아들을 낳은 산모가 입었던 속옷이나 월경대를 얻어오거나 훔쳐서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부인의 복부에 감고 다니면 아들을 임신하게 된다는 풍습 등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아들을 낳게 한 산신의 힘을 빌려 자기 아들을 낳아보려는 노력에서 나온 민간 풍습들이었다.

이밖에도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



는 남아선호 관습은 딸이 많고 아들이 귀한 집에서 또 딸을 낳게 되어 섭섭함을 표하는 뜻으로 짓는 딸의 이름이나 귀한 아들을 얻게 됐을 때 그 아들이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작명습관에도 잘 나타나 있다.

기대했던 아이를 낳고 보니 아들이 아닌 딸이었을 때 그 분통함을 표시하여 '서운' '섭섭' '절통' '유감' 등으로 이름짓거나 '딸이' '딸순' '공지' '딸막이' 등으로 지어 이제는 딸을 그만 낳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시하기도 했으며 '기남' '후남' '가망' 같은 이름을 딸에게 지어주므로써 '아들의 터전'이요 '다음에는 아들'일 것이라는 기대를 걸기도 했다.

또한 귀한 아들을 얻었을 경우에 아들을 건강하게 지키려는 소망을 담아 '돼지' '강아지' '개똥' '쇠똥' '바위' '돌이' '바보' 등의 천한 이름을 지어주어 염라대왕이나 귀신이 아예 관심이나 시기심조차 갖지 않아 무병장수할 것과 돌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질 것을 기원하였다.

딸이라는 이유로 90년 한해 2만명 낙태수술

이처럼 딸보다는 아들을 중요시하는 남아선호의 전통관습은 오늘날 단순히 민간신앙의 재현으로뿐 아니라 '초음파 검사'라는 첨단의료기기를 이용한 태아성감별에 의한 과학신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이하은 도의하

남아선호사상의 강화는 남녀 성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 향후 인간생태계 질서에 일대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비불균형은 국내에 첨단의료기기가 적극 도입되기 시작한 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80년 1백3.9명이던 성비가 85년 1백10명, 90년 1백16.9명으로 증가했으며 출산을 마친 부인의 경우 1자녀 성비는 무려 2백6명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당초 태아의 이상유무 및 유전질환 확인 등을 미리 진

단하기 위해 들어온 초음파검사를 비롯한 양수검사, 융모막세포검사기기가 본래의 사용목적에서 벗어나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태아성감별을 부채질하는 길로 악용되고 있음은 태아의 성감별을 통한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건수에서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달 30일 보건부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개최한 '저출산시대의 인구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우리나

라의 성선호와 성비불균형'이란 논문발표를 한 미국하와이대 박재삼 교수에 의하면 86년부터 90년까지 모두 8만건의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이 발생, 출생한 여아수의 5%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죽어갔으며 90년 한해만 2만건에 이르는 태아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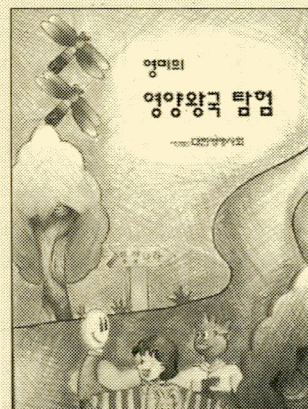
"최근 들어 출산율이 2명 이하로 저하되면서 아들을 둘 수 있는 확률이 과거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을 이용해 아들을 낳는 부모의 수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 박 교수는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아들만 두면 단산하는 출산풍토에서 남아선호관은 출산력 저하에 궁극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신한 자녀의 성이 딸로 판명되면 인공임신중절을 통해 임신 중절을 시키는 세대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엄청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87년 태아의 성을 식별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바 있지만 초음파태아진단이 여전히 태아성별검사로 남용되고 있다는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초음파진단은 태아의 발육지진, 면역기능저해, 염색체손상 등 태아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태아성감별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은 자궁내 각종 질병이나 습관성 유산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맹목적인 남아선호사상을 버리고 자녀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할 것과 인공임신중절 예방, 균형있는 인구성비의 유지에 초점을 둔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희 기자>

어린이 대상 식생활 교육 서적 출간

(사)대한영양사회서 펴낸 <영미의 영양왕국 탐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실시해온 (사)대한영양사회는 식품과 영양소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어린이 스스로 영양왕국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진단, 개선하도록 구성된 동화책 <영미의 영양왕국 탐험>을 개발했다.

학예회 때 똥똥하다는 이

유로 무척이나 하고 싶었던 공주역을 맡을 수 없게 된 국민학교 4학년생인 주인공 영미가 살을 빼기 위해 '영양왕국'에 지원서를 내면서 시작되는 이 동화는 신비한 영양왕국의 탐험을 통해 자신의 똥똥함이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쳐나가는 내용으로 그림과 갖가지 식단표, 식단체획서 등이 함께 담겨있다.

특히 '배추냉자' '썰렁자'의 안내로 판정의 나라, 영양소의 나라, 식품나라를 여행한 영미가 재미있는 시간여행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비교해가며 '똥똥이 습관'을 고치고 '날씬이 습관'을 갖게 되는 내용이 재미있게 묘사돼 있다. 책문의는 842-2466.